

## 『심벨린』에 나타난 성서적 영향\*

권 영 근\*\*

< 차 례 >

1. 서론
2. 성서적 언어와 인물
3. 타락과 죄악
4. 율법과 구원
5. 용서와 재생

### 1. 서론

“The Romances”, “The Last Plays” 등으로 명명되고 있는 Shakespeare의 말기 작품들은 그가 인생 말기에 궁극적으로 깨달은 인간 이해의 사려깊은 통찰력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작품속에 표출되어 나타나 있는 풍부한 종교적 언급들과 Shakespeare작품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神(gods)이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종교적 내용이 풍부한 말기 작품들의 배경은 일차적으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남신(gods)과 여신(godesses)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교적 세계이다. 이교적 배경들은 당시 극작가들이 연극에서 어떠한 종류의 신성 모독적인 언급들도 금지하는 1606년의 “신성모독금지령(Act to Restrain Abuses of Players)”에 의한 고발 위험 부담을 피하면서 성서적 주제들을 취급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sup>1)</sup>. 말기 작품들도

\* 이 논문은 1997년도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국외파견 연구지원 계획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1) Peter Milward(213-4), “The obvious reason is the passing in 1606 of an Act to Restrain Abuses of Players, which prohibited stage-players from using the names of God, Jusus Christ, the Holy Ghost, or the Trinity, profanely or in jest... Apart

그전의 작품들처럼 표면적으로는 먼저 인간의 세속적 세계와 재난들과 그 위업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작품들은 세속적 세계와 그 언어 그리고 인간사를 형성하는 필수적 요소로써 종교적으로 의미심장한 인간행위들을 극화하고 있는 것이다. R. M. Frye의 지적대로 이같은 세속적인 영역내에서도 Shakespeare는 때때로 그의 작품에 독특한 인물들과 상황을 부여해 주는데 기여했음직한 신학적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다(44). 이교적 배경속에서도 기독교적 요소는 정치나 인간관계와 같은 세속적 관심들과 동일하게 그의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Shakespeare는 이러한 “평범한 세속 세계(little world of man)”(*King Lear* III. i. 10)가 지닌 각양의 측면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요소들을 그의 말기 작품들에 분명히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다.

20세기초에 이르기까지 *Cymbline* 비평의 주된 쟁점은 대체로 이 작품의 극적 구조에 관련된 것 이었다. 목가적인 로맨스, 영국과 로마의 역사, 전통적인 내기 시합 등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희비극의 형식으로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의 극적 구조는 경시와 찬사 사이에서 다양한 평가를 받아왔다. 극의 주제에 대한 논의 또한 극중 요소들을 다루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면서 50년대 이후로는 죄와 회개 그리고 구원이라는 기독교 교리에 바탕을 둔 재생과 화해를 이 작품의 중심되는 주제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Shakespeare의 극작품 가운데 가장 다양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이 작품은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양한 해석과 복잡한 접근방식을 허용한다.

*Cymbeline*은 특히 80년대에 들어서서 공연이 활발해지고 아울러서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새롭게 작품을 해석하는 시각의 하나는 지금까지 이작품의 취약점으로 생각되어온 결말 부분에 대한 평가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작품의 공연사를 살펴보면 이 결말 부분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동안 수없이 다시 쓰여지고, 재배열되고, 재

---

from *Macbeth* ... all the plays after the date (1606) have a pagan setting. A deeper reason, however, is perhaps to be found in the religious development of the dramatist ... not that he was moving from Christian to pagan, but that he found it more convenient in the circumstances of his age to express his Christian vision indirectly in terms of classical mythology.”

해석 되어져 왔다. 이같은 사실은 연극에 대한 기호와 문학작품에 대한 취향 그리고 극장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텍스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내용의 풍부함과 다양성 그리고 광범위한 의미를 수용할 수 있는 텍스트의 열려있는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Shakespeare는 이 작품에서 그의 이전 작품에서와는 대조적인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다. Macbeth, Hamlet, Lear, Othello등 거물들의 통절한 비극 후에 그가 보인 관심은 그러한 위대한 영웅들의 몰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같은 비극적 몰락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행복한 결말을 맺게 해주는 신비하고도 초자연적 힘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심속에서 창작한 이 작품속에서 그의 초절적 인생관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의심과 미움과 죄악과 전쟁이 믿음과 사랑과 용서와 평화로 변화하여 모두에게 구원과 재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Shakespeare가 이 작품속에 담고 있는 심오한 삶의 본질과 내면에 침잠되어 있는 숨겨진 사상을 표출해 내기 위하여 *Cymbeline*의 주제, 구성, 인물, 언어, 기교, 비유, 상징 등을 중심으로 작품속에 용해되어 있는 성서적 영향과 그 양상을 해석학적으로 탐구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Cymbeline*의 작품세계와 그 문학성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기보다는 그 방법론의 한계성 때문에 부득이 한 측면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 2. 성서적 언어와 인물

“the Nativity”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Cymbeline*은 많은 성서적 신학사상과 기독교적 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Imogen의 제5계명에 대한 언급(I. ii. 18), 자살금지예에 대한 생각(III. iv. 78-79), 성경자체에 대한 언급(III. iv. 82), 하늘의 은총에 대한 언급(I. iv. 4) 기독교적 인생관(IV. ii. 4-5), 신의 은총과 예정에 대한 칼빈 사상(I. ii. 68) 그리고 Iachimo의 지옥에 대한 언급(II. ii. 50) 등 수많은 기독교적 이미지와 신학사상이 침잠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Cymbelin*은 다른 작

폼보다 더 많은 기도와 종교적 연상 언어들로 가득 차있다. 신은 유일한 정의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등장 인물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푸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Belarius와 그가 양육한 두 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드리는 성스러운 일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교육받고 있고(III. iii. 3-4), Posthumus 는 V막에 등장할 때부터 회개로 시작하여 감옥 속에서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전쟁의 승리를 “the heavens fought”(V. iii. 4) 라고 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Howard B. White는 “What is to the point is Imogen’s possible relation to the Nativity, and Shakespeare’s intention”(74)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Shakespeare는 Imogen에게 그리스도의 상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다. Shakespeare는 우선 다른 인물들이 Imogen에게 보내는 신성과 관련된 언어들을 통하여 그녀에게 그리스도의 상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Posthumus의 “The gift of gods”(I. v. 82), “The temple/ of virtue”(V. v. 220-221), “your(God’s) own”(V. i. 16), Second Lord 의 “Thou divine Imogen”(II. i. 56), Iachimo 의 “dearest soul”(I. viii. 118), “a heavenly angel”(II. ii. 50), Belarius 의 “an angel”(III. vii. 15), “divineness”(III. vii. 16), “Thou blessed thing”(IV. ii. 206) 그리고 Pisanio의 “more goddess-like than wife-like”(III. ii. 8), “you heavenly blessings”(III. v. 162) 등 성서에서 그리스도에게 부합되는 다양한 표현을 통하여 그녀에게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녀에게는 또 종교적인 혹은 제의적인 경배의 대상과 연결된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다. 그녀의 침실은 “chapel”(II. ii. 33)로 묘사되고 있고 그녀는 여러 번 “temple”(II. i. 63, IV. ii. 55, V. v. 220)에 비유되고 있다. Iachimo는 그녀를 죽였다가 다시 사는 “Arabian bird”(I. vii. 17)로 또 그녀의 눈을 “azure lac’d / With blue of heaven’s own tinct”(II. ii. 22-23)로 묘사하고 있다. 이 같은 표현들은 Imogen을 관중들에게 다른 인물과는 차별하여 생각하게 할뿐만 아니라 극의 대단원을 감안한다면 메시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기에 충분하다. Martin Lings도 Posthumus를 인간의 속성인 “soul”로 Imogen을 신의 속성인

“Spirit”의 상징으로 해석하고 있다(99). 이 같은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Imogen이 겪는 각종 수난과 상징적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더욱 분명해진다.

Imogen은 III. ii에서 Cymbeline궁전을 탈출하기 전까지는 전형적인 로망스의 여주인공으로서 유덕하고 순진하며 무죄한 공주로 등장하는데, Shakespeare는 그녀에게 Posthumus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는 세 가지의 호된 시련을 겪게하고 있다. 그 첫째는 Posthumus가 Rome으로 추방당할 때이다. 그녀는 Cloton과 결혼할 것을 권하는 아버지에게 “I chose an eagle/ and did avoid puttock”(I. ii. 70-71)라고 말함으로써 아버지의 면전에서 단호하게 Posthumus에 대한 사랑을 선언한다. 그 결과로 그녀는 궁중에 연금 당하는 고통을 겪게된다. 두 번째 시험은 Iachimo와의 만남에서 일어난다. Posthumous가 Rome에서 방탕하다는 거짓 정보를 주면서 유혹하지만 그녀는 이때도 단호히 거절하고 Posthumus에 대한 정절을 천명한다. 세 번째 시험은 Cloton이 그녀에게 직접 구애했을 때인데 그녀는 이 때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Posthumus에 대한 정절을 선언함으로써 이때부터 Cloton의 짐승 같은 복수심의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세 가지 시험은 무죄한 영혼 Imogen과 사탄의 세력인 세상권력, 육신의 정욕, 그리고 마귀와의 만남을 암시한다(cf. Cullen, xiii-xxxvi). Cymbeline왕은 세상 권력의 상징이고 Iachimo는 마귀의 상징이며(I. vii. 148) Cloton은 육신의 정욕을 상징하는데 Imogen은 이 세 가지 세력에 의해 시도된 시험을 물리침으로써 Posthumus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정절을 극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Imogen이 세 가지 시험을 Posthumus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세 번에 걸친 마귀의 시험을 성경말씀을 통하여 물리친 것(마4:1-11)에 비유할 수 있다. Imogen도 예수와 같이 세상권력, 육신의 정욕, 마귀와의 호된 시험에서 확고한 믿음의 승리를 보여준 것이다.

Imogen을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하인 소년으로 변장한 Fidele가 IV. ii에서 실제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비유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다. Stage direction을 보면 “Re-enter Arviragous, with Imogen, dead, bearing

her in his arms.”(IV. ii. 194)로 되어있다. 그녀의 죽은 시간 “The ninth hour o’th’ morn.”(IV. ii. 30)도 그리스도가 죽은 “about the ninth hour”(마27:46-47)와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Imogen의 죽은 시간에 Guiderius가 Cloton을 살해했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그녀의 죽음이 Cloton의 죽음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그녀가 “Arabian bird”(I. vii. 17)로서 Queen이 준 약을 다 먹고 죽었다가 재생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듯이 그때까지 이 작품의 극 세계에 만연해 있었던 악의에 찬 음모의 힘이 종식되었음을 의미한다. 악의 세력이 종식된 후 Pisanio가 Posthumus에게 보내준 “bloody cloth”(V. i. 1)을 보고 Imogen이 죽었다는 증거가 확실한 그때부터 Posthumus의 영혼 속에 회개의 과정이 시작되고 있음도 주목 할만 하다. 성서에서 피는 구원의 상징으로서(히9:22, 롬5:9) Imogen은 인류를 구원한 그리스도와 같이 타락한 Posthumus에게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Imogen에 의한 Posthumus의 구원과정은 그리스도에 의한 인류 구원 과정과 동일한 패턴을 취하고 있다. “the Nativity Homily”는 빌립 보서 2:7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타락한 인간에 대한 구원과정이 기록되어 있고(*Homilies*, Book II, 171, 174) 성서도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Let the same mind be in you that was even in Christ Jesus, who being in the forme of God, thought it no robbery to be equal with God: But he made himself of no reputation, and toke on him the form of a servant, and was made like unto men, and was found in shap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unto the death, even the death of the cross. Wherefore God hath also highly exalted him and given him a Name above everie name. (*The Geneva Bible*, Phil 2:5-9)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가 스스로 모든 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성취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Cymbeline 궁전에서 Beliarus의 동굴까지 간 Imogen의 여행도 그리스도의 수욕과 수난에 있어서의 자기비하 혹은 신성포기와 동일한 패

턴을 따르고 있다. 그녀는 왕권상속의 특권을 포기하고 “a riding suit: no costlier than would fit/ A franklin’s house wife”(III. ii. 77-78)로 변장하고 비밀리에 아버지의 궁전을 떠난다. 요컨대 Posthumus를 구하기 위하여 특권을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는 과정의 하나로 순종하는 소년 종으로 변장하라는 Pisanio의 충고를(III. iv. 156-159) 받아들인 것이다. “divine Imogen”(III. i. 56), “the gift of gods”(I. v. 82), “more goddess-like than wife-like”(III. ii. 8) 같은 칭호를 받으면서 이같이 점점 더 겸손한 코스를 선택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Shakespeare가 “toke on him the form of a servant, and was made like unto men, and was found in shape as a man”인 그리스도의 모습과 Imogen의 수난과정을 병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극의 대단원에서 Imogen은 Iachimo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극의 얽힌 관계자들을 풀어주는 단서를 최초로 제공하지만 왕위 계승권까지 기꺼이 포기하면서 철저한 순종적인 자세로 남는다. Fidele-Imogen으로 분리되었던 Imogen의 자아는 결말 부근에서는 Fidele - “nothing”(VI. ii. 367) - “piece of tender air”(V. iv. 140)의 상태로 점차 승화되어 간다. Imogen은 완전한 자기 포기를 통해서 “angel”이나 “temple”의 상태로 갈 수 있었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정 이기도 하다.

### 3. 타락과 죄악

전체적으로 *Cymbeline*의 중심 플롯은 “the Nativity Homily”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다. David S. Kastan도 이와 같은 패턴을 “essential salvation pattern of innocence/fall/ redemption”(40)의 반영으로 보고 있다. Shakespeare는 인간존재의 타락과 구원이라는 성서적 주제의 중심인물로 아담의 상징인 Posthumus를 제시하고 있다.

*Cymbeline*의 개막장면에서 제1신사는 Posthumus를 이상적인 주인공으로 소개하고 있다.

a creature such  
 As, to seek through the regions of the earth  
 For one his like; there would be something failing  
 In him that should compare. I do not think  
 So fair an outward, and such stuff within  
 Endows a man, but he. (I. i. 19-24)

Shakespeare가 Posthumus를 극찬하고 있는 목적은 그를 세상의 “paragon”으로 제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Evans 249). 그는 남다르게 덕이 있는 인물로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완벽하여 비교할 상대가 없는 인간의 전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성품은 타락 이전의 Adam을 연상시켜준다. Homilies의 “the Nativity Homily”에는 타락하기 전 Adam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Adam) as well in body and soule exceeded all other no lesse, then the Sunne in brightnesse and light exceedeth every small and little star in the firmament ... Hee was sound and perfect in all parts, both outwardly and inwardly.(Book II, 167)

아담도 Posthumus와 같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다. 두 사람 사이의 이 같은 유사성은 제 1신사가 Posthumus를 “A sample to the youngest, to th’ more mature/ A glass that feated them,”(I. i. 48-49)이라고 칭찬한 내용과 “the Nativity Homily”에서 타락이전의 아담을 “a mirror of perfection.”(Book II, 167)이라고 표현한 것과를 비교해 보면 더 잘 드러난다.

Posthumus의 구원 여행은 Imogen과의 결합, 이별 그리고 재회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 정립에 핵심이 되는 단어는 “믿음”이다. 이 플롯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등장인물들의 성격도 믿음에 대한 그들 각각의 태도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예컨대 Imogen은 믿음의 실체인 그리스도로, Iachimo는 무신론적 음모가로, Cloton은 믿음이 없는 악한으로 제시되어져 있다. 도덕적 차원으로 보면 믿음은 인간사회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규범으로서 믿음을 상실하면 인간관계는 붕괴되고 사회에서는 고립된다. 또 성서적 차원에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 11:1)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롬3:28)이다. Posthumus가 Imogen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었을 때는 그의 타락은 도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가 Imogen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될 때는 도덕적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도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Shakespeare는 Posthumus와 Imogen의 이별장면에서 ‘일차적으로 이 두 인물을 믿음의 관계로 시작하게 함으로써 극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믿음은 시간을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그들을 묶어주는 일종의 계약서 같은 것이다. Imogen은 그녀의 인생에서 유일한 위로는 Posthumus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변치 않는 믿음이라고 선언한다(I. ii. 21-23). 그리고 Posthumus도 이에 대응하며 “I will remain/ The loyal’st husband that did e’er plight troth”(I. ii. 26-7) 라고 약속한다. 그들은 상징적 예물을 교환함으로써 믿음에 대한 서로의 서약을 의식화하고 있다. Imogen은 Posthumus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또 Posthumus는 Imogen에게 팔찌를 준다. 다이아몬드 반지는 Imogen의 Posthumus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상징물이다(I. ii. 42-45). 물론 Martin Luther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the wedding ring of faith”(61) 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그것은 영적 의미의 믿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Imogen의 다이아몬드 반지는 두 사람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Posthumus가 그것을 지니고 있는 동안에는 그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되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는 그 반지를 끼면서 “Remain, remain thou there,/ While sense can keep it on”(I. ii. 48-9)라고 다짐한다. 그러나 Posthumus가 야비한 내기 게임에 걸려들어 그 보증으로 Iachimo에게 이 반지를 걸었을 때부터(I. v. 143-144) 그는 분명히 이성을 잃기 시작했고, II. iv에서 그에게 최종적으로 양도해 버렸을 때 그는 Imogen의 변함없는 정절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되어 결국 타락한 인간으로 전락한다. 그런데 그의 타락은 아담의 그것을 연상 시켜준다.

(Although he had) but one commandment at God’s hand, namely that hee should not eate of the fruite of knowledge of good and ill,

(he) did notwithstanding, most unmindefully; or rather most wilfully breake it, in forgetting the strait charge of his maker, and giving eare to the craftie suggestion of that wicked serpent the devill. (Homilies Book II, 167-168).

Posthumus도 아담과 같이 지극히 이상적인 인간 상태에서부터 타락한다. 그도 아담처럼 “most unmindefully”하고 “most wilfully”하게 내기 게임에 동의함으로써 Imogen의 정절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다. 이는 비유적으로 그가 “fruite of knowledge of good and ill”를 먹은 것에 해당된다. Posthumus가 Iachimo의 악의에 찬 제안을 받아 들였을 때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듯이 그도 이미 Imogen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것이다. 그러나 작품의 대단원에서 Iachimo로부터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돌려 받았을 때는 그리스도의 상징인 Imogen과 화해함으로써 도덕적 회복 뿐 만 아니라 영적 구원도 성취되는 것이다.

Posthumus는 Imogen과는 달리 시험에 약한 인물이다. 그는 Iachimo의 시험에 힘없이 무너진다. Shakespeare는 Iachimo가 계락을 꾸민 목적이 일차적으로 Imogen의 정절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Posthumus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자 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I make my wager rather against your confidence than her reputation”(I. v. 107-108). Imogen은 Iachimo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쳤지만 Posthumus는 현명한 Philario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I. v. 117-119, 144) Iachimo의 내기 게임에 쉽게 말려든다. Imogen을 정복했다는 Iachimo에게도 Imogen의 부정을 입증 할만한 눈으로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믿음은 “the evidence of things which are not seen”(Heb11:1)이고 Imogen의 정절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 같은 것으로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Posthumus가 Imogen의 정절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확신은 그것 자체에 내재해 있는 그 자신의 믿음뿐이다. 그러나 내기 장면에서 그는 그 믿음을 보여 주고 있지 못하다. 그는 “if you make your voyage upon her, and give me directly to understand you have prevail'd, I am no further your enemy;”(I. v. 154-157) 라고 말함으로써 Iachimo가 승리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Imogen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Posthumus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과 관계없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일상적 현상이 논리적으로 움직이는 세계에서 부조리한 세계, 어두움의 세계로 전락한다. 그런데 작품의 인물들이 어두운 밤의 세계로 떨어지면 대개 그에 상응하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데 Posthumus도 믿음을 상실한 후 "lion's whelp"(V. iv. 138)가 사나운 짐승으로 변하여 "O, that I had her here, to tear her limb-meal!"(II. iv. 147)라고 Imogen을 저주하고 있다. 이 장면을 끝내고 있는 악의에 차고도 여자를 증오하는 독백은 Posthumus의 성격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증거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포함하여 모든 여자들은 저주한다.

Is there no way for me to be, but women  
Must be half-workers? We are all bastards,  
And that most venerable man, which I  
Did call my father, was I know not where  
When I was stamp'd. (II. iv. 153-157)

Iachimo의 술책에 말려들어 타락하게 된 Posthumus는 이제 사악한 회의주의자로 변했다. 이 같은 회의주의는 이미 상실한 믿음에 대한 등가물이다. 회의주의와 복수를 위한 마키아벨리적 계획, 즉 Imogen을 광야로 유인해 내어 살해하려는 계획은 주인공이 이제 아주 악한으로 전락했음을 보여 주는 증표이다. Posthumus는 타락한 아담처럼 "In stead of the Image of God, he was now become the Image of the Devill."(Homilies Book, II 168)로 변한 것이다.

Shakespeare는 Posthumus를 욕육에 찬 Cloton으로 대치시키는 방법으로 믿음을 상실한 주인공의 영적 타락 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Posthumus의 옷을 입고 등장한 Cloton은 스스로 "the lines of my body are as well drawn as his"(IV. i. 9)라고 자랑한다. 그리고 Imogen도 Pisanio가 준 약을 먹고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후 목이 잘린 Cloton의 시체를 보고 "A headless man? The garments of Posthumus?"(IV. ii. 308)라고 Posthumus의 육체로 착각한다. 생명도

머리도 없는 몸체는 이성 없는 육체의 소욕을 좇아 사는 인간의 모습으로서 Cloton의 죽음은 믿음을 상실한 Posthumus의 모습이다. 따라서 “This burial is not only the end of Cloton, the man who could not love, but of the conventionally proper Posthumus, credulous and violent.”(253) 라는 Homer D. Swander의 지적은 적절하다. 그러나 믿음을 잃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옛사람(엡4:22)의 죽음은 믿음을 회복하여 구원을 성취하는 새사람(엡4:24)의 탄생을 예고하기도 한다.

#### 4. 율법과 구원

V막에 다시 등장한 Posthumus는 육욕에 찬 옛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길에 들어선 새사람의 모습이다. II막 마지막에서 보여준 그의 감정 폭발과 V막에 다시 등장해서 종교적 어휘들로 가득 찬 기도를 드리는 모습 사이에는 많은 내적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외적으로 변했는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엡4:22)에서 탈피하는 표시로 이탈리아의 옷을 벗어버리고 소박한 영국 농부의 옷으로 갈아입었다(V. i. 22-24). 다음으로는 그가 전쟁터에서 Iachimo를 물리쳤을 때 보여준 내적 변화이다. II막에서 보여준 그에 대한 감정은 오로지 복수심이었는데 여기서는 자비의 심성이 작동하여 오히려 살려주는 것이다. 이 순간에 Iachimo도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Posthumus가 구약의 율법정신에서 신약의 용서와 구원정신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내·외적 변화는 Posthumus의 도덕적, 영적 구원을 예고해주는 증거가 되고 있다.

*Cymbeline*의 마지막 국면은 변화된 Posthumus가 믿음을 회복해 가는 어려운 과정을 그리고 있다. Shakespeare는 이것을 두 단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Posthumus가 양심을 묶고 있는 족쇄를 풀고 양심의 해방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좌절하고 마는 과정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그가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고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어 Imogen과 화해하는 과정이다. 전자는 비유적으로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갈2:16), 후자는 인간은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을 수 있음을(롬3:28)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

은 신학사상은 오늘날은 물론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었던 당시에도 널리 알려졌던 기독교 교리이었다. Shakespeare는 죄악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이 마지막 장면에서 Posthumus를 통하여 잘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Posthumus는 V. i에 다시 등장하여 V. v에서 Imogen과 화해하는 순간까지 Imogen에 대한 불신과 그녀를 살해한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는 Imogen을 죽인 죄를 보상하는 수단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등 죄로부터 해방 받기 위해 여러 가지 행위를 동원해 보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며 율법의 행위만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다(갈2:16). John Calvin도 율법의 행위와 구원과 관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e philosophers postulate four kinds of causes (of salvation) to be observed in the outworking of things. If we look at these, however, we will find that, as far as the establishment of our salvation is concerned, none of them has anything to do with works. (III. xiv. 17)

어떠한 “acts, workes, and deeds”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Homilies Book I, 13). 바울 사도가 거듭 강조하고 있듯이 믿음만이 죄인에게 의롭다함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믿음만이 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다(롬1:17, 3:28). 그러나 그는 *Cymbeline*의 마지막 장의 대부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상징인 Imogen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Posthumus는 V막 초의 독백에서 Imogen의 살해를 명령한 것을 회개하고 있다(V. i. 1-17). 그러나 회개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율법의 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Luther 73). Alan R. Velie도 Posthumus의 회개를 Cain이나 Judas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Posthumus가 구원의 전제조건인 믿음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83). 그런데 Imogen에 대한 Posthumus의 믿음은 Iachimo가 V. v에

서 지금까지 자신의 악역에 대해 고백할 때 가서야 회복되어진다. 그러므로 Imogen에 대한 Posthumus의 믿음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언제까지라도 그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다(갈3:23). Posthumus가 율법아래 묶여 있다는 극적 증거는 마지막장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그가 체인을 차고 감옥에 갇혀있다는 사실이다. 이 장면은 율법아래 묶여 있는 주인공의 정신적, 영적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다. Shakespeare는 감옥 속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주인공을 제시함으로써 믿음을 수반하지 않는 어떤 율법적 행동도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Shakespeare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Posthumus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구원을 예고해주는 유령들과 신의 현현 장면을 준비하고 있다. 이 장면은 고도의 극적 효과를 동원하여 주인공의 구원을 위한 기도와 그에 대한 대답을 그리고 있다. 유령들은 Jupiter 신에게 근본적으로 섰던 Posthumus가 Iachimo로 대표되는 악에 의해 희생되어 고통의 길을 걷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언제 그에게 "justice"(V. iv. 92)가 주어질 것인가를 묻는다. 이에 대해 Jupiter 신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한다.

Whom best I love I cross; to make my gift,  
 The more delay'd, delighted. Be content,  
 Your low-laid son our godhead will uplift:  
 His comforts thrive, his trails well are spent:  
 Our Jovial star reign'd at his birth, and in  
 Our temple was he married. Rise, and fade.  
 He shall be lord of lady Imogen,  
 And happier much by his application made.  
 (V. iv. 101-108)

Jupiter 신의 대답은 "the central questions raised by the play's action about justice and mercy and truth and seeming"(Peterson 144)에 대한 것으로서 약속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서는 여러 곳에서 Adam, Noah, Abraham, Mose 그리고 특히 다윗 왕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데 Jupiter 신의 대답도 성서

와 같이 약속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Luther도 성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술하고 있다.

Thus we come to the most perfect promise, that of the New Testament. The words are plain: life and salvation are promised without price: they are given to those who believe in the promise.(275)

Jupiter의 약속대로 Posthumus의 구원이 성취되고 있다는 점에서 Jupiter의 약속은 “the most perfect promise, that of the New Testament”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Jupiter is the One God, called Jupiter in this play simply because the setting happens to be pre-Christian Britain”(Bryant 200)이나 혹은 “Jupiter fills the role of God while retaining his own identity”(Velie 86)라는 주장을 감안해 볼 때 Posthumus는 God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유령들은 Posthumus의 품안에 수수께끼 형태로 되어 있는 약속의 글이 써 있는 서판을 남겨 놓는다.

when as a lion's whelp shall, to himself unknown, without seeking find, and he embrac'd by a piece of tender air: and when from a stately cedar shall be lopp'd branches, which, being dead many years, shall after revive, be jointed to the old stock, and fleshly grow, then shall Posthumus end his miseries, Britain be fortunate, and flourish in peace and plenty. (V. iv. 138-145)

Peggy M. Simonds의 주장대로 이 “서판은 신약전서를 상징하는데”(224) 신약이 인류에게 구원과 평화를 선포하고 있듯이 이 서판도 Posthumus와 영국에게 구원과 재생을 약속하고 있다. Jupiter 신은 Posthumus가 Imogen의 남편이 되고 또 이 시련으로 해서 더욱 행복해 질 것을(V. iv. 107-108) 이미 약속했고 이제는 이 서판을 통하여 Posthumus에게는 그리스도의 상징인 Imogen과의 결합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Cymbeline왕에게는 잃었던 자식들의 귀환을 통한 영국의 재생

을 예고해 주고 있다. 그런데 영국의 재생에 대해서는 *Cymbeline*과 *Ezekiel*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John Boe의 해석이 흥미롭다.

In *Cymbeline* the cedar tree (representing the King, thus Britain) has branches (sons) removed, and for many years is thought dead; but the King's sons are reunited with the King, and the tree (Britain) is restored to 'peace and plenty'(V. v. 458). (333)

Posthumus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상징인 Imogen에 대한 믿음의 회복과 재회를 통하여 성취된다. *Cymbelin* 왕을 중심으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Fidele로 변장한 Imogen은 Iachimo의 손가락에 있는 자신의 반지를 발견하고 “render/ of whom ye had this ring”(V. v 135-6)라고 그 출처를 요구한다. Iachimo가 Posthumus와의 내기 게임에 대한 전말을 자세히 설명하여 밝히자 Posthumus는 드디어 그 진상을 깨닫고 Imogen에 대한 믿음을 회복한다. 그는 Imogen이 절대로 부정하지 안 했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자신이 무죄한 Imogen을 죽인 죄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진정으로 시인하고 회개하면서(V. v. 210-224) Imogen을 부른다.

O Imogen!

My queen, my life, my wife, O Imogen,  
Imogen, Imogen! (V. v. 225-227)

그는 이제 속죄의 유일한 보상수단으로 택한 죽음도 필요 없게 되었다. 그는 Imogen을 “my life”(요14:6)로 영접하면서 그녀를 부른다. 이때 Imogen은 아직도 Fidele로 변장한 모습으로 Posthumus 곁으로 간다. 변장했던 Imogen의 신분이 모두에게 밝혀진 후 그녀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포옹한다.

Why did you throw your wedded lady from you?  
Think that you are upon a rock, and now  
Throw me again. (V. v. 261-263)



성서에서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마16:18, 고전10:4) 타락한 인간이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상징한다(Homilies Book I, 16). 따라서 Posthumus가 반석인 Imogen을 영접하며 포용하는 것은 “an acceptance not simply of a woman but of grace” (Swander 254)로써 그의 영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죄에 대한 충분한 회개와 용서를 통해 구원받은 Posthumus는 Imogen에게 “Hang there like fruit, my soul/ Till the tree die”(V. v. 263-4) 라고 제안함으로써 Imogen과 Posthumus는 과일이 나무에 연합되어 하나가 되듯이 믿음과 사랑이 회복된 한 쌍으로 재생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상징인 Imogen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고 재결합을 통하여 구원을 성취한 Posthumus는 Iachimo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새사람이 되었다. Iachimo가 Posthumus 앞에 무릎을 꿇고 “Take that life, beseech you/ Which I so often owe”(V. v. 415-416)라고 목숨을 포기하자 다음과 같이 용서를 베푀다.

The power that I have on you, is to spare you:  
The malice towards you, to forgive you. Live  
And deal with others better. (V. v. 418-421)

이 같은 Posthumus의 “Christian gesture”(Velie 88)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원수에게 취해야 할 이상적인 태도의 모범이 되고 있다(롬12:20-21).

## 5. 용서와 재생

Imogen과 Posthumus의 극적 상봉이 이루어진 후 Cymbeline왕은 실종되어 생사를 알 수 없었던 두 아들 Guiderius와 Arviragus와도 재회한다. 또 두 아들을 유괴했지만 훌륭하게 성장시킨 Belarius와도 화해하여 형제로 환영한다. 영국을 침략했던 로마군대는 영국군에 의해 평정되었다. Iachimo까지 회개하고 Posthumus로부터 용서를 받은 지금 Cymbeline왕은 “Pardon’s the word to all”(V. v. 423)라고 선포함

으로써 모두에게 구원을 선언하는 종교적 차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또 Rome의 장군 Caciuss Lucius에게도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 Rome와의 관계를 재정립한다.

Although the victor, we submit to Caesar  
And to the Roman empire. (V. v. 461-462)

아버지와 딸, 아내와 남편 그리고 신하와 왕자사이의 용서와 화해는 영국과 로마제국과의 화해로 확대 발전된다. 이것은 또 로마에서 독수리가 서쪽으로 날아오듯이 로마제국의 권위와 가치가 영국으로 전이되어 평화가 정착되는 영국의 재생으로 이어진다. Arthur C. Kirsch도 영국의 재생을 염두에 두고 *Cymbeline*의 대단원에서 영국과 로마제국 간의 평화가 구축된 것은 “Britain’s baptism as a nation”(163)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Soothsayer는 이 같은 평화의 정착을 작품 전체에 흐르고 있는 신의 작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The fingers of the Powers above do tune  
The harmony of this peace. (V. v. 466-467)

“the Nativity”를 배경으로 한 *Cymbeline*에서 마지막에 선포되는 이 같은 “peace”는 “the Nativity”를 감안해 볼 때 자연적으로 그리스도 탄생시 선포된 “peace in earth”(눅 2:14)를 연상시켜 주기에 충분한데, 그것은 전적으로 신의 권능에 의한 것으로써 영국을 비롯하여 온 인류에게 주는 신의 선물로 파악된다.

작품의 마지막 대사도 신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여 세계평화에 대한 기원으로 끝맺고 있다.

Laud we the gods,  
And let our crooked smokes climb to their nostrils  
From our blest altars. Publish we this peace.  
To all our subjects. Set we forward: let  
A Roman, and a British ensign wave  
Friendly together: so through Lud’s town march,

And in the temple of great Jupiter  
 Our peace we'll ratify: seal it with feasts.  
 Set on there! Never was a war did cease  
 (Ere bloody hands were wash'd) with such a peace.

(V. v. 477-486)

이절판에서는 *Cymbeline*이 비극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Boe가 여  
 기서 선포하고 있는 “peace”를 “the Nativity”와 관련지어 “perhaps  
 an allusion to the Pax Romana, the supposed peace on earth that  
 followed the birth of Christ”(333)라고 추정하고 있듯이 이 같은 평  
 화가 주창되고 있는 결말은 이 극을 확실하게 낭만희극으로 바꾸어  
 주고 있다. 그의 모든 작품 중에서 *Cymbeline*보다 더 거룩하고 평화  
 로운 끝맺음은 없을 것이다. 이전에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재생  
 된다. 농부들은 왕자로 변화되고, 불협화음은 조화로 대체되며, 전쟁  
 대신에 평화, 의심 대신에 믿음, 미움 대신에 사랑, 죄악 대신에 용서  
 가 제공된다. “the time (that) is troublesome”(IV, iii. 21)이 “gracious  
 season”(V. v. 401)으로 변화하여 소중한 것들이 모두 재생하게 된 것  
 이다.

Shakespeare는 *Cymbeline*에서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기 위하여 인  
 간 존재의 원천적인 목적을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노력한  
 것 같다. 그래서 그는 당대인들의 공동관심사였던 인간영혼의 구원  
 (Spencer 2)이라는 시대사상을 이 작품을 통하여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인류구원의 주제의식을 형상화  
 시키기 위하여 성서의 주제의식과 구성방법 그리고 인물, 언어, 비유,  
 상징 등을 작품 속에 아날로지의 형태나 상징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유혹, 타락, 죄, 율법, 회  
 개, 용서, 구원, 재생 그리고 평화와 같은 주제들은 성서적 주제의식이  
 작품 속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Shakespeare는 이러한 성서적  
 주제의식을 형상화할 때 항상 인간 본성의 탐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  
 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는 널리 알려진 세계속인 이야기에다 중  
 량감 있는 성서적 공명을 가해줌으로써 작품의 심오한 예술성을 창조  
 하고 있는 것이다.

## Works Cited

- Boe, John. "Shakespeare and Ezekiel." *Notes and Queries* 240 (1995): 331-34.
- Bryant Jr., J. A., *Hippolita's View: Some Christian Aspect of Shakespeare's Plays*. Lexington: U of Kentucky P, 1961. 192-206.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 Vols., Ed. John T. McNeile, Tr.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 1960.
- Cullen, Patrick. *Infernal Triad: The Flesh, the World, and the Devil in Spenser and Milton*. Princeton: Princeton UP, 1974.
- Evans, Bertrand. *Shakespeare's Comedies*. Oxford: Clarendon P, 1960. 245-88.
- Frye, R. M. *Shakespeare and Christian Doctrine*. Princeton: Princeton U.P., 1967
- Kastan, David Scott. "'More than History can Pattern' : Notes Towards and Understanding of Shakespeare's Romances." *Cithara* 43 (1977): 29-44.
- Kirsch, Arthur C. *Shakespeare and the Experience of Love*. Cambridge: Cambridge UP, 1981. 144-73.
- Lings, Martin. *Shakespeare in the Light of Sacred Art*.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1. 94-103.
- Luther, Martin.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Ed. John Dillenberger, Garden City, New York: Anchor Books, 1961.
- Milward, Peter, *Shakespeare's Religious Background*. Tokoy: The Hokoseido P, 1973.
- Nosworthy, J. M., Ed. *The Arden Edition of the Works of William Shakespeare: Cymbeline*. London: Methuen, 1969
- Peterson, Douglas L. *Time, Tide and Tempest: A Study of Shakespeare's Romances*. The Huntington Library, 1973. 108-50.
- Simonds, Peggy Munoz. *Myth, Emblem and Music in Shakespeare's Cymbeline: An Iconographic Reconstruction*. U of Delaware P, 1992.
- Spencer, Theodore. *Shakespeare and The Nature of Man*. New York: Collier Book, 1942.
- Swander, Homer D. "Cymbeline: Religious Idea and Dramatic Design." *Pacific Coast Studies in Shakespeare*. Ed. Waldo F. McNeir and Thelma N. Greenfield, Eugene, Oregon: U of Oregon Books, 1966. 248-62.
- Velie, Alan R. *Shakespeare's Repentance Play: The Search for an*

- Adequate Form*. Rutherford: Fairleigh Dickenson UP, 1972. 61-91.
- White, Howard B. *Copp'd Hills Towards Heaven: Shakespeare and the Classical Polity*.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70. 65-92.
- Certain Sermons or Homilies Appointed to be Read in Churches in the Time of Queen Elizabeth I (1547-1571): A Facsimile Reproduction of the Edition of 1623*. Ed. Mary Ellen Rickey and Thomas B. Stroup. Gainesville, Florida: Scholars' Facsimiles & Reprints, 1968.
- The Geneva Bible: A Facsimile of the 1560 Edition*. Madison, Wisc.: U of Wisconsin P, 1969.
- The Old and New Testament : King James Version and Korean Revised Hankul Version*. 서울: 대한성서공회, 1988.